

## 卷 頭 辭

韓國 商法學界의 泰斗이시며 우리 法學界의 師表이신 仁山 鄭熙喆先生님께서 今年 2月 28日로 停年을 맞이하여 30年 가까운 세월 동안 몸담고 계시던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떠나시게 되었다. 그간 先生님께서서는 수많은 著書와 論文을 發表하시어 우리나라 商法學의 發展을 위하여 많은 業績을 남기셨을 뿐 아니라 後進養成에도 心血을 기울이시어, 先生님께 直接 指導를 받은 수많은 人士들이 法學界와 法曹界를 主導하면서 우리나라 商法學과 法曹 發展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先生님께서서는 지난 1971年 부터 1977年까지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으로 在職하시면서 學術書籍 및 學術誌의 刊行, 法學研究의 지원, 세미나의 개최 등에 크게 기여하신 바 있는데, 특히 豫定發刊卷數 總63卷에 달하는 法學全書의 發刊과 새로운 法學教育의 方法을 제시한 判例教材시리즈의 發刊에 있어서 主導的인 역할을 하시었다.

이와같이 우리 法學界를 위하여 많은 業績을 남기신 先生님의 退任을 맞이하여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法學發展을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報答하고자 하는 뜻에서 미흡하나마 法學 第26卷 1號를 先生님의 停年退任紀念號로 發刊하여 奉呈하기로 하였다.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나 一生을 學問의 길로 정진하시어 이제 停年退任을 맞이하신 先生님의 學德을 높이 숭앙하면서 앞으로 선생님께서 더욱 건강을 누리시고 餘生동안 더 깊고 새로운 學問의 世界를 열어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끝으로 本 退任紀念論文集을 위해 특별히 寄稿해 주신 여러 教授님들께 深甚한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1985年 3月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所 長 徐 元 宇